

이이남 개인전

《시어무형(視於無形) 청어무성(聽於無聲): 생명과 존재를 향한 회화적 사유》



담양 용소폭포에서 채집한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이이남 작가

전시제목 : 이이남 개인전 《시어무형(視於無形) 청어무성(聽於無聲): 생명과 존재를 향한 회화적 사유》

전시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10월 24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름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미디어 및 설치 15점

○ 담 당 이주연 팀장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60923-20261024_이이남 개인전

1. 전시 개요

학교재는 2026년 9월 23일(수)부터 10월 24일(토)까지 이이남(1969-)의 개인전 《시어무형(視於無形) 청어무성(聽於無聲)》: 생명과 존재를 향한 회화적 사유》을 연다. 2009년 이후 학교재에서 다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이어온 '이미지 변환' 연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지가 맺히기 이전의 움직임과 생명 자체로 시선을 돌린다. 이는 이미지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를 되짚는 작업으로의 이동이다. 이이남은 기술을 매개로 감각의 범위를 넓혀온 실험을 바탕으로,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생명체의 움직임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자리로 관람객을 이끈다.

2. 전시 주제

'시어무형(視於無形) 청어무성(聽於無聲)'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고, 소리 없는 것에서 듣는다'는 옛 경구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말하는 '시편 19편'의 구절과도 맞닿아 있다. 감각으로 직접 포착되지 않는 존재를 보고 듣는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눈에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인간의 지각이 다다르지 못하는 지점에서도 무수한 생명과 물질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이이남은 용소폭포에서 직접 물을 채집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육안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미시의 영역과 마주한다. 용소폭포에서 시작해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물길은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는 출발점이자 작가 자신의 뿌리를 되짚는 장소다. 한 방울의 물속에서 태어나 움직이고 소멸하는 작은 생명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명의 기원과 존재가 어디에서 와 어디로 향하는지를 질문한다. 확대된 유기체의 형태와 이동, 그리고 군집이 그려내는 선의 자취는 마치 산맥의 능선을 연상시킨다. 때로는 유려하게 흐르거나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낮익은 표면을 깊이 파고들수록, 세포와 입자로 이루어진 또 다른 결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는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산수(山水)'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이때 산수는 완결된 풍광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눈앞에 펼쳐진 형상에는 미세한 움직임과 물질의 변화, 빛과 시간 등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함께 자리한다. 거시와 미시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서로 다른 척도에서 들여다볼 때 나타나는 여러 층위에 가깝다. 작가는 전통 회화의 도상과 현미경으로 포착한 미세한 형태를 교차시키며, 우리가 흔히 '풍경'이라 불러온 대상의 이면을 탐색한다. 멀리서는 산과 능선으로 읽히던 화면이 가까이에서는 수많은 개체와 입자의 자취로 흩어지고, 크기와 거리에 따라 상이한 면모를 드러낸다. 전시 제목의 '형상 없음'은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아직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기 이전의 상태, 유동적인 순간을 뜻한다. '소리 없음' 역시 완전한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청의 문턱을 넘어선 곳에서도 파동은 이어지며, 감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현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눈과 귀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실재를 규정해 온 시각에 균열을 낸다.

《시어무형(視於無形) 청어무성(聽於無聲): 생명과 존재를 향한 회화적 사유》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가시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집요한 탐구에서 시작된 물음은 인간과 비인간을 비롯해 자연과 기술이 서로 얹히며 빚어내는 관계망으로 뻗어 나간다. 미시의 결로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사유의 지평은 확장된다. 이이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고, 소리 없는 것에서 듣는' 행위는 익숙한 감각의 테두리를 벗어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존재까지 시야에 담으려는 태도이다.

3. 작품 소개



두 개의 세계

2026

Media installation, Water tank, Water,
Display, Stainless steel, Digital video,
9min 23sec
200x60x120cm

<두 개의 세계>는 전시장 입구에 놓인 작품으로, 곽희(郭熙)¹의 <조춘도(早春圖)>를 수조 안에 배치하였다. 화면은 수면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뚜렷하게 나뉜다. 상단에는 원작의 산세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반면, 하단에서는 현미경으로 촬영한 미생물의 자취가 스며들면서 익숙했던 장면이 낯선 모습으로 바뀐다.

수조를 반쯤 채운 물은 작품을 가르는 물리적인 경계인 동시에, 두 부분을 한눈에 보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위아래 서로 다른 크기와 밀도로 제시되지만, 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관람객의 눈은 자연스럽게 전체를 오가며 같은 모티프가 관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을 살피게 된다. 한 화면 안에 병치된 두 가지 시각적 조건을 가리킨다. 고전 회화를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하나의 물, 여러 개의 풍경 - 용소

2026

CRT Monitors, Digital video, Sound,
Steel structure, 9min 23sec
120x120x236.5cm

<하나의 물, 여러 개의 풍경 - 용소>는 담양 용소폭포에서 직접 촬영한 물과 숲, 바위, 빛을 여러 대의 CRT 모니터에 나누어 보여주는 작품이다. 폭포의 전경을 한 번에 보여주는 대신, 흐르는 물과 흔들리는 나뭇가지, 수면에 비친 것처럼 현장에서 포착한 부분들을 잘게 나누어 제시한다. 각각의 영상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재생되며 용소에서 채집한 순간들을 이어 붙인다.

설치는 통상적인 배열을 따르지 않는다. CRT 모니터를 바닥에서부터 세로로 쌓고, 그 위로 이어지던 흐름을 더 높은 곳에 매달아 연결한다. 일반적인 감상 방식을 벗어나, 관람객의 눈길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직사각형 안에 담겨져 흩어진 기록들은 전시장 안에서 다시 모여 용소를 새롭게 구성한다.

¹ 곽희(郭熙, Guo Xi, 1023-1085)는 중국 북송 중기의 산수 화가이다.

**무브 사운드 이미지 - 공동세계**

2026

CRT TV, Water tank, Water, 8-Channel
Projection mapping, Digital video,
Sound, Stainless steel structure,
9min 23sec
120x140x60cm

**미시산수 微視山水 - 금강내산**

2026

LED Display, Single-channel video,
Sound, 9min 23sec
220x480cm

<무브 사운드 이미지 - 공동세계>는 수조에 비스듬히 잠긴 CRT-TV와 8대의 프로젝터를 결합한 작품이다. 중앙의 CRT-TV에는 산수와 현미경으로 촬영한 미생물이 수면을 사이에 두고 교차한다. 포착된 개체의 윤곽과 궤적은 크기가 극적으로 확대되면서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변한다.

가까이 다가가면 세부적인 자취가 선명해지고, 멀어질수록 서로 연결되어 광대한 지형처럼 다가온다. 미생물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산수는 어느 순간 인간이 남긴 전쟁과 폐허의 기억을 불러온다. 작은 생명들이 이룬 공동세계와 인간이 만들어낸 파괴의 풍경을 대비하며, 어떤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되묻는다. 사운드가 더해지며 작품은 관람객이 서 있는 자리까지 확장된다. 벽과 바닥을 따라 흐르는 영상과 소리는 더 이상 한 지점에서 바라보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 사이를 직접 거닐며 마주하도록 이끈다.

<미시산수 微視山水 - 금강내산>은 미생물의 형상과 움직임, 축적된 흔적을 금강산의 모습으로 전환한 병풍 형식의 미디어 작품이다. 화면을 채운 점과 얼룩, 세포와 유기적인 흔적은 저마다 독립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산과 능선, 골짜기가 이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이남은 병풍의 형식에 현미경으로 관찰한 세계를 중첩해 서로 다른 크기의 질서를 한데 포개어 놓는다.

여러 폭이 접히고 펼쳐지는 병풍의 구조 역시 작품의 중요한 요소다. 보는 위치에 따라 이어져 있던 모습이 나뉘거나 다시 연결되며, 부분과 전체의 인상도 달라진다. 작은 단위들이 모여 거대한 금강산을 이루는 구성은 작가가 말하는 ‘공동세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4. 작가 소개

이이남(1969-)은 전통 회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동시대적 시각언어를 구축해온 이 분야 최초의 미디어아트 작가다. 고전 회화와 산수의 이미지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새롭게 변주하며,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해왔다. 영상과 미디어아트뿐 아니라 대형 미디어파사드와 공공 프로젝트 등으로 작업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국내외 미술관과 비엔날레, 국제 문화행사에서 활발하게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이남은 전남 담양에서 출생했다. 1995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동 대학원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이남의 산수극장》(20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찬란한 풍경-몽골, 한국》(2025, 칭기즈칸 국립박물관, 울란바토르, 몽골)《형상 밖에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2023,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Personal Structures: Crossing Borders》(2015, Palazzo Bembo-Palazzo Mora, 베니스, 이탈리아), 반 고흐 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 퍼포먼스(2023, 반 고흐 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Unique Henan · Land of Dramas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2021, 정저우, 중국), 《백남준·이이남》(2018, KAIST, 대전), 《빌 비올라·이이남》(2016, 세인트 제이콥 교회, 겐트, 벨기에) 국내외 주요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한 2025년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로마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였으며, 2024년 창경궁 궁중문화축전, 2022년 서울 미디어아트 위크와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2021년 마드리드와 중국 정저우의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과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식 등에서 미디어아트 감독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Google Arts & Culture 프로젝트와 Google Gemini 아트 컬래버레이션에 참여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 협찬 작가로 활동했다.

이이남은 선미술상, 올해의 미술인 청년작가상, 광주신세계미술상,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5. 작가 약력(축약본)

1969 전남 담양 출생

학력

- 2013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 수료
- 2011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 1997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원 순수미술 석사 졸업
- 1995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 학사 졸업

주요 개인전

- 2026 시어무형(視於無形), 청어무성(聽於無聲): 생명과 존재를 향한 회화적 사유, 학교재, 서울**
재생종인 기억, 빙하미술관, 원주
- 2025 찬란한 풍경-몽골, 한국, 칭기즈칸 국립박물관, 울란바토르, 몽골
이이남의 산수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 2024 형상 밖으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 대구
보이는 것 너머의 빛, 구리문화재단, 구리
- 2023 형상 밖에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생각하는 풍경, 우종미술관, 보성
- 2022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
화성오디세이: 빛으로 수놓은 화성의 우주적 유토피아, 화성ICT생활문화센터, 화성
-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이이남, 생명의 위로,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빛의 시그널,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알마티, 카자흐스탄
- 2020 He's been here...Postmodern Aura In Lee Lee Nam, 메타피지컬 아트 갤러리, 타이베이, 대만
- 2019 빛의 조우, 서울식물원 마곡문화관, 서울
- 2018 A Path to Peace, 마스 미디어 아트 센터, 모스크바, 러시아
- 2016 업데이트_6, 지브라스트라트, 겐트, 벨기에
At the rising of the roots, 안도 파인 아트, 베를린, 독일
- 2015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 뉴욕, 미국
키갈리 국경일 기념전,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 키갈리, 르완다
- 2014 다시 태어나는 빛,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 2013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콰이펑한 아트 갤러리, 홍콩, 중국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아트미아, 베이징, 중국
- 2012 모네와 소치의 대화, 칼라마주미술관, 칼라마주, 미국
Dillusion, 콰이펑한 아트 갤러리, 홍콩, 중국
- 2011 명화는 살아있다!,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서울
모네와 소치의 대화, 데노스 뮤지엄 센터, 트레이버스 시티, 미국
- 2010 손끝의 예술, 선화랑, 서울
- 2009 사이에 스며들다, 학교재, 서울
빛과 예술의 만남, 신세계갤러리, 서울;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 2008 미스 인사이드 모니터, 메타피지컬 아트 갤러리, 타이베이, 대만
이이남 개인전, 카이스갤러리, 홍콩, 중국
- 2007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이이남전, 신세계갤러리, 광주
이이남, 리아트갤러리, 대구
- 2006 올해의 청년 작가 이이남: 실상과 허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5 이이남,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 2026 New York, New Ink!,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교과서 속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시간여행,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양구
- 2025 국제 디지털 아트 트리엔날레: 공생, 헝가리 미술가, 응용미술가협회 갤러리, 부다페스트, 헝가리
벼와 다시 야생으로, 초베이미술관, 항저우, 중국
- 2024 예루살렘 비엔날레, 예술과 노마드: 다중의 지평, 프레지던트 호텔, 예루살렘, 이스라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을 만나다, 아원의 시(試)공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 2023 반 고흐 미술관 개관 50주년: 살아있는 미술관, 반 고흐 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Fission: The New Wave of International Digital Art, 창사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창사, 중국
- 2022 제주비엔날레: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
지난국제비엔날레: 공생의 세계, 산동미술관, 산둥, 중국; 지난시미술관, 지난, 중국
-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예술가의 사물을 표현하는 형식 관찰기,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20 ONE INSPIRATION-한국 전통문화에서 찾은 최초의 아이디어, 와지엔키 왕궁박물관, 바르샤바, 폴란드
평화를 심다 세계를 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 2019 런던아시아영화제 Film & Art: 뿌리들의 일어섬, 스타 시네마, 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한국 비디오 아트 7090: 시간 이미지 장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8 백남준&이이남 미디어아트, KAIST 비전관, 대전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 2017 이스탄불비엔날레: Taste of Tea, 하이다르파샤 기차역, 이스탄불, 튀르키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미래들, 4차 미디어아트: 포스트휴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16 빌비올라&이이남, 세인트 제이콥 교회, 겐트, 벨기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베스트포센 미술관, 베스트포센, 노르웨이
세계의 정원, 리트베르크 박물관, 취리히, 스위스
- 2015 베니스비엔날레: PERSONAL STRUCTURES: Crossing Borders, 팔라초 모라, 베네치아, 이탈리아
월로비 비주얼 아트 비엔날레: Imagining Place, 월로비, 호주
- 2014 동시적 올림, 포르타바트 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유산, 빛을 만나다, 유네스코 본부, 파리, 프랑스
- 2013 어느 노병의 이야기-60년의 기억, 130년의 우정, 아시아 하우스, 런던, 영국
코리안 컨템포러리, 숄츠 컨템포러리, 베를린, 독일
고베비엔날레, 메리켄 공원, 고베, 일본
- 2012 디지털 퍼니처,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서울
광주미술상 수상작가, 우제길미술관, 광주
- 2011 청두비엔날레: Pure Views: Contemporary Art Exhibition, 동교기역, 청두, 중국
- 2010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50주년 기념전, 안시, 프랑스
동방의 등불, 랄릿 칼라 아카데미, 첸나이, 인도

- 2009 모스크바비엔날레 특별전, 모스크바, 러시아
정신의 지형_2009 한국의 단면들, 국립대만미술관, 타이중, 대만
- 2008 세비야 비엔날레: Youniverse, 알람브라 궁전, 그라나다, 스페인
Meme Trackers, 송창미술관, 베이징, 중국
- 2007 박물관 꽃을 피우다, 국립공주박물관, 광주
스미소니언 미술관 개관 기념전,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워싱턴 D.C., 미국
- 2006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두 개의 현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수상 및 선정

- 2020 코리안 아이 2020 선정 작가, 패러렐 컨템포러리 아트, 런던, 영국
- 2010 선미술상, 선화랑, 서울
- 2009 올해의 미술인 청년작가상, 한국미술협회, 서울
올해의 미술가 대상, 광주 KBS, 광주
- 2005 올해의 청년작가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광주신세계미술상 대상,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
- 2002 광주미술상,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광주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선정 작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주요 프로젝트

- 2026 Google x 이이남 미디어아트 협업, Gemini Playground, 서울신라호텔, 서울
FIFA 북중미 월드컵 미디어 파사드, 사포판 바실리카, 사포판, 멕시코
- 2025 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기념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콜로세움, 로마, 이탈리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
- 2024 봄 궁중문화축전-창경궁 물빛연화, 창경궁, 서울
- 2023 축제 KOREA NOW, 아우터넷 런던, 런던, 영국
서울라이트 광화문: 디지털 서브컬처, 광화문, 서울
- 2022 서울미디어아트워크, 디지털 미디어채널,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서울
라운하제: 여름밤의 서늘맞이, 미디어 파사드,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21 유니크 허난: 랜드 오브 드라마, 미디어파사드, 중무현 평안대로, 정저우, 중국
The Signal of Light, 외부 스크린, 테아트로 로페 데 베가, 마드리드, 스페인
- 2020 기업시민, 공존을 위한 빛, 미디어아트 설치, 포스코센터, 서울
다시 태어나는 광주, 미디어아트 설치, 전일빌딩245, 광주
- 2017 책 속의 얼굴, 국립중앙도서관 기록매체박물관, 서울

레지던시

2018 파리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시, 파리, 프랑스
경주 국제 레지던시 아트페스타, 경주

주요 경력

2020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연구 FGI 자문위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 피날레 미디어아트 감독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개막식 미디어 감독
2017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식 미디어아트 감독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식 총감독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디어아트 공연 연출 감독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미술총감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 미디어아트 감독

주요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경기도미술관, 안산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영암
리움미술관, 서울
의재미술관, 광주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서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외 다수

6. 전시 서문

*서문을 발췌하실 경우, 반드시 작성자와 출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무형, 청어무성(視於無形, 聽於無聲)

윤재갑(독립 큐레이터)

이이남의 작업은 오랫동안 '이미지'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전통 산수와 고전 회화의 명작을 디지털 이미지로 다시 불러내고, 정지된 화면에 움직임과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의 감각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작업에서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이미지에 잠재되어 있던 시간과 생명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감각 장치였다. 고정된 그림은 움직이는 이미지가 되고, 과거의 풍경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풍경이 되었다.

2026년 학교재에서 선보이는 이번 개인전은 그동안 지속해온 '이미지의 변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기존 작업이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에 새로운 시간과 움직임을 부여하는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미지가 생성되기 이전의 세계, 형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움직임과 생명을 응시한다. 작가의 시선은 인간이 익숙하게 바라보아온 자연의 풍경에서 훨씬 작고 깊은 세계로 이동한다.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세포와 미생물, 식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와 생명의 운동이 새로운 작업의 출발점이 된다.

이이남의 작업은 바로 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세계'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세계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세포와 미생물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물 한 방울 속에서도 생명은 움직이고, 하나의 세포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진행된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 그 미세한 운동의 규모와 속도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작업에서 '형상 없음'은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형상이 생성되기 이전의 상태, 혹은 고정된 형상으로 포착될 수 없는 생명의 과정에 가깝다. 생명은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스스로 형상을 만들어나아간다. 이이남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러한 미세한 운동을 확대하고 변형하며,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생명의 과정을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 경험으로 전환하고 있다.

'청어무성'의 의미 역시 여기에서는 확장된다.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향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움직임에는 진동이 따르고, 진동은 파동과 흔적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청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이남에게 '소리 없는 소리'는 바로 이러한 존재의 미세한 진동, 생명이 스스로를 지속시키며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울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유는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Move-Sound-Image'와 맞닿아 있다. 움직임은 진동을 만들고, 진동은 소리가 되며, 그 과정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여기서 이미지는 더 이상 외부 세계를 복제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과 존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흔적이며, 아직 완결되지 않은 세계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점에서 이이남의 새로운 작업은 그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근원적인 차원으로 확장한다. 과거의 작업이 전통 산수와 고전 회화를 움직이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함으로써 정지된 화면 속에 시간과 생명을 불어넣었다면, 이제 작가는 이미지 자체가 생성되는 근원을 바라보고 있다. 무엇이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가?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시적 생명 세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산수가 된다.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 산과 강, 나무와 바위의 풍경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세포와 미생물, 입자와 진동의 또 다른 풍경에 다다른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질문은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확장된다. 존재란 무엇이며,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결국 '시어무형, 청어무성'은 이번 전시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존재의 울림을 듣기' 위한 하나의 태도가 된다. 이이남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고, 그동안 이미지 바깥에 머물러 있던 미시적 세계를 새로운 감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가 그린 미시 세계의 이미지는 완성된 세계의 표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움직이고, 진동하고, 생성되고 있는 세계의 한 순간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은 결국 생명과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다.